

423km, 64만 발걸음 옮겨 한국불교 귀의처 삼보사찰 순례 회향

“중생의 이익을 위해 중생의 행복을 위해 길을 떠나라” 이르신 석가모니 부처님. 이제 저희는 중생 걸음로 움직이는 불교, 적극적인 불교, 친절한 불교로 나아가겠습니다. 상월선원 만행결사의 깃발을 중생계와 허공계에 회향하며, 모든 생명에 부처님의 기도가 가득하기를 발원합니다.”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18일간 12개 시군 423km를 행선해 국지대찰 불지종찰 통도사에 도착했다. 10월1일 승보종찰 송광사에서 입제식을 갖고 10월9일 법보종찰 해인사에서 대장경을 진전한 순례단은 10월18일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불보종찰 통도사에 도착해 금강계단을 참배하고 삼보사찰 천리순례의 회향을 고했다.

앞서 10월15일 순례단은 10번째 기착지인 경남 밀양에 도착했다. 이날 새벽 부곡을 떠나 밀양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순례단을 맞이한 것은 물결처럼 늘어선 환영 현수막들이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전임에도 거리마다 늘어선 불자들의 박수와 환호성이 장엄하게 울려 퍼졌고, 날이 밝자 풀물때까지 등장해 순례단 걸음걸음을 응원했다.

순례단은 사명대사의 법호에서 유래한 사명로(四溟路)를 따라 행선했고, 동틀 무렵 흥제사에 도착했다. 흥제사는 임진왜란 당시 의승병을 이끌고 왜군을 크게 무찌르고 일본에 전쟁포로로 끌려간 조선인 3000명을 한국시킨 사명대사의 표충각과 표충비각을 보호하기 위해 지은 사찰이다. 흥제사에는 서산·사명·기허대사의 진영을 모신 표충사당이 있었으나 18세기 후반 재약산 표충사로 옮겨지면서 지금은 표충비만 남아있다. 이 표충비는 환란이 있을 때면 땀을 흘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흥제사를 참배하고 아침공양을 마친 순례단이 다시 숙영지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밀양전에 들어서자 수변공원 곳곳에는 무봉사, 보문사, 용궁사 등 밀양시암연합회 사부대중이 순례단을 맞이했다. 무봉사 신도 신영자 불자는 80세 고령에도 순례단 한명 한명에게 합장 반배로 인사를 건넸다. 그는 “송광사에서 해인사, 다시 통도사까지 천릿길을 걷고 수행하며 순례하는 스님과 불자들을 직접 보고 싶었다”며 “어렵고 힘든 길 끝에 바라는 바 성취하시고 그 공덕으로 이 땅에 부처님의 기도가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10월16일, 삼보사찰 천리순례 16일차 새벽은 흠뻑리는 빗속에서 시작됐다. 씬 씬 내리는 빗줄기는 급세 순례단을 적시었고, 곳곳에 물웅덩이를 만들어 순례단의 발걸음을 더디게 했다. 그러나 삼보를 예경하며 불에는 화답하는 어정을 발원하며 떠나온 길이기에 느릿지연정 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숙영지에서 16일차 순례의 목적지인 표충사까지는 24km. 전날 밀양에 도착하며 이어진 불자들의 환영과 응원은 이날도 계속됐다. 경남 유일의 종립학교 동국대 부속 흥제중에는 김웅 교장을 비롯해 교직원들이 순례단을 박수로 맞이했



10월1일 승보종찰 송광사를 출발한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 9일 법보종찰 해인사를 거쳐 18일 불보종찰 통도사에 도착했다.

물결처럼 늘어선 환영 현수막...불자들 응원 속 행선

가을 역사가 전하는 무설법문 지남 삼아 사자평 건너

10월18일 통도사에서 삼보사찰 천리순례 회향식 봉행

고, 단장면사무소 앞에는 신명사 신도 옥연화 불자가 꼭두새벽부터 보이차를 준비해 순례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표충사로 향하는 재약산 초입에 들어서자 태극, 중국, 스리랑카, 베트남, 미얀마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스님과 이주민들이 “삼보사찰 천리순례 힘내세요” 구호를 외치며 박수와 환호로 순례단을 응원했다.

순례단은 느린 발걸음을 씬 씬이 더해 오전 10시 사명대사 호국선양도량 표충사에 도착했다. 서산, 사명, 기허대사의 진영을 모신 표충사당을 찾아 차를 올린 순례단은 대령전 앞마당에서 16일 순례의 회향을 부처님께 고했다. 표충사 주지 진각 스님은 “송광사를 출발해 큰 재를 넘고 강을 건너 비가 오는 가운데 이곳 표충사에 도착했다”며 “상월선원 천막결사 당시 사부대중의 응원이 있었기에 무탈하게 해제를 맞이할 수 있었

다. 이번에는 사부대중의 원만회향을 위해 저와 표충사가 응원하고 모시겠다”고 인사했다.

10월17일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마지막 일차인 불보종찰 통도사 문턱에 다가섰다. 사월한 파에 기운이 급격히 떨어진 새벽 표충사에서 예불을 모신 후 통도사로 향하는 마지막 고개인 해발 800m의 사자평으로 향했다. 정상까지 이어진 7km의 순례길은 가파른 오르막이 계속됐고, 지난 16일간 평균 25km씩 힘든 행선을 이어온 만큼 사자평으로 향하는 길은 쉽지 않았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두 차례 휴식을 취한 후 능선에 도달하자 재 너머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품은 사자평의 풍광이 그림처럼 펼쳐졌다. 곳곳에 살얼음이 낀 추운 날씨에도 누렇게 굽이지며 능선을 따라 가득 매운 역새들은 하늘하늘 춤을 추며 순례단을 반겼다. 각각의 사부대중이

하나가 되어 걷듯 역새는 각각이 하나이며 전체이고 전체이며 하나인 정엄한 화엄세계를 펼쳐 보였다.

재약산 사자봉 아래 위치한 사자평은 58만㎡, 축구장 81개 규모로 가을이면 역새가 물결을 이루는 장관이 펼쳐진다. 불교에서 사자는 지혜, 즉 깨달음을 상징한다. 부처님의 말씀을 사자후라고 하듯 사자평은 말없이 대자연의 이치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하는 곳으로 전해져 왔다. 이런 이유로 스님과 불자들은 이곳을 터전 삼아 지혜를 닦고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 심신을 단련했다. 신라의 화랑도가 그랬고, 조선시대 임진왜란 전후 사명대사가 승군을 훈련시켰던 곳도 이곳이다. 단순한 고산습지가 아니라 나라와 백성의 안녕을 지키려 했던 화랑도와 스님들의 피와 땀이 스며든 호국의 땅이 바로 사자평인 것이다.

아날은 삼보사찰 천리순례의 회향을 앞둔 주말을 맞아 일일참가자 200여명이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특히 동국대 불교청년지도자, 수국사 상월청년회 등 불교의 미래를 이끌 청년불자들이 대거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수국사 상월청년회 김근영(29) 불자는 “하루 걷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이 추운 날씨에 바깥에서 걷고 주무신다



는 애기를 들고 많이 놀랐다. 삼보사찰 천리순례의 원력을 이어 상월청년회가 더욱 확장되고 발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10월18일, 18일간의 걸음걸음이 이어져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영축총림 통도사에 닿았다. 무풍한송로를 따라 마지막 행선에 나선 순례단이 일주문과 천왕문을 지나 금강계단에 들었다. 마침내 부처님 품에 이르는 것이다. 맨발로 사리탑을 향해 선 순례단은 삼배를 올린 후 금강계단을 세 바퀴 돌며 부처님을 친견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도감 호산 스님이 죽비 삼성과 함께 18일간 423km에 이르는 삼보사찰 천리순례의 회향을 부처님께 고했다. 순례자 중에는 삼보사찰을 두 발로 걸어 모두 순례했다는 감격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순례단은 금강계단에서 괘불을 모신 대웅전 앞마당으로 자리를 옮겨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을 비롯해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성과, 주지 현문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동참해 순례의 원만회향을 축하했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은 환영사에서 “난행(難行)을 능행(能行)하면 존중여불(尊重如佛)이다, 어려운 일을 능히 행하면 부처님과 같이 존중을 받는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월선원의 결사정신은 상구보리의 씨앗을 심었고, 자비순례로 화회중생을 실천했으며, 이제 삼보사찰 천리순례로 자리이타를 알게 했다”며 “우리는 오늘 미래 한국불교의 새 길이 열리고 걸음 걸음마다 피어나는 희망을 보았다”고 찬탄했다.

“삼월삼동목조전(三月三冬點照禪) 삼사천리수행례(三寺千里修行禮) 영산금일교료월(靈山今日皎瞭月) 조파산하대지혜(照破山河大地慧). 삼동에 상월선원에서 묵언정진하셨습니다. 삼보사찰 천릿길을 수행해 예를 갖췄습니다. 영축산의 밝고 밝은 달은 금일 산하대지를 완전히 비추어 밝게 빛나게 할 것입니다.”

방장 성과 스님은 법어를 통해 인고의 수행을 거쳐 마침내 회향한 순례단을 치하했다. 스님은 “오늘날 승가에 가장 절실한 것은 남을 비판하고 남을 낮추는 것을 지양하며, 남이 잘하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라며 “항간에 말이 있겠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내 마음이 편하고 상대의 마음도 편하게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순례단은 이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불제자가 될 것을 발원했다. 순례단을 대표해 발원문을 낭독한 진오 스님은 “저희 순례단은 18일간 423km를 64만보 넘게 두 발로 걸어 불지종가 통도사에 도착했다”며 “함께 걸어서 행복했고, 함께한 시간만큼 한국불교 중흥에 마음을 모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상월선원 만행결사는 11월11일 위례 천막결사 2주년을 기념하고 삼보사찰 천리순례의 회향을 축하하는 자리를 갖는다.

밀양·울산·양산=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2021년 제2회 운강명상학술상 시상식 및 수상논문 발표회

시상 및 발표 : 2021년 11월 6일(토) 14시 ~ 18시 00분

시상 및 발표 장소 : 탄허기념불교박물관

운강명상학술상 집행위원회는 제2회 우수논문으로 「명상을 통한 성육의 극복으로부터 아만의 제거까지」(이영진/ 경북대 동서사상 연구소)와 「자비 체험의 심리학적 탐색과 자비 조망 훈련의 효과 검증」(하현주/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을 선정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최근 3년간 발표된 명상 관련 학위논문 및 학술지 등재 논문을 공모한 결과 25편 논문이 접수되어, 7월부터 3개월간 심사를 거쳐 우수작 2편을 선정했습니다. 2편의 논문은 학문성과 시의성 그리고 연구의 발전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11월6일 오후 2시 탄허기념불교박물관에서 진행되며 수상작 발표 이후에는 지정 토론자와의 대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운강명상학술상은 운강 최훈동 한별정신건강병원장이 출연한 기금으로 운영되며 명상을 학문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공헌한 연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앞으로도 매년 명상 분야의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시상식 및 발표회 일정

14:00 - 14:30	: 개회, 인사말, 시상식, 수상소감 발표
14:30 - 15:10	: 「명상을 통한 성육의 극복으로부터 아만의 제거까지」 (이영진 발표)
15:10 - 15:25	: 이필원 교수 토론
15:25 - 15:35	: 휴식
15:35 - 16:05	: 「자비 체험의 심리학적 탐색과 자비 조망 훈련의 효과 검증」 (하현주 발표)
16:05 - 16:20	: 박성현 교수 토론
16:20 - 17:20	: 종합토론
17:30	: 폐회

농민과 소비자 직거래 괴산 금산농원 절임배추

21년 10월 27일부터
36,000원
(무료배송)
(20kg기준 6~8포기)

대량 주문시
할인가능!!!!
문의 010-3457-1446



괴산 금산농원 절임배추의 특징

1. 괴산군 청안면 충고랭지 지역으로 배추가 단단하고 아삭하며 고소합니다.
2. 괴산대학철육수수 이모작 땅에서 재배하여 육수수 대공과 작은 육수수를 천연거름으로 사용합니다.
3. 지난 20년간 김치공장 운영 노하우
4. 국내산 신안천일염 사용